

一. 緒言

社稷은 土地의 주인인 社와 五穀의 어른인 稷을 말함이며 이를 祭祀하는 壇을 만들어 社稷壇이라 하였다. 社壇은 東쪽에 두고 稷壇을 西쪽에 두는 規範이 있다.

社는 本來 中國에서 일정한 地域의 血族集團이 행하던 중심적 제사의 對象이었던 것이나 血緣社會가 붕괴되면서 土地神, 農業神으로 받들게 되고 여기에 穀物神인 稷을 합하여 社稷이라 이르게 되었다.

특히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던 社는 서민집단의 한 單位로서도 존재하며 본래는 祭禮集團의 한 單位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戰國時代 이후에 天·地·人의 思想이 생기면서 社와 稷은 하나로 합하여 土地, 穀物을 관장하는 地神으로 받들어져 이로부터 天子가 주재하는 중요한 국가적 제사의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직을 받드는 제사는 三國時代부터 있었던 바 增補文獻備考의 記錄에

883 1110a(1082.46)

- 高句麗 故國壤王 9年(392)에 國社를 세웠다.
《梁書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살고 있는 좌편에 큰 건물을 세우고 겨울에 社稷에다 제사한다”고 하였다.》
- 新羅 宣德王 4年(783)에 처음으로 社稷壇을 세웠다.
- 高麗·成宗 10年(991)에 처음으로 社稷을 세웠으며 王城의 佛恩寺 西洞에 있는데 社는 東便에 있고 稷은 西便에 있다.
각각 넓이가 5丈, 높이가 3尺 6寸이고 사방으로 섬돌을 내었는데

四. 社稷壇 復元 淨備計劃

1. 復元計劃의 概要	88
2. 壇牆復元	89
3. 齋室部分의 復元	91
4. 社稷署部分의 復元	92
5. 保護區域 內部 整備計劃	93
6. 外郭宮牆 및 北門復元	94
7. 社稷壇 復元 造景計劃	95
• 圖版 (卷末 復元圖面)	
社稷壇 復元計劃 조감도	103
社稷壇 復元計劃 配置圖	104
壇門 復元計劃圖	105
北神門(周門)復元計劃圖	106
東周門(紅箭門)復元計劃圖	107
周垣內의 神道, 版位復元計劃圖	108
神室 復元計劃圖	109
社稷壇 復元造景計劃 綜合分析構想圖	110
社稷壇 復元造景計劃 植栽綜合計劃圖	111
復元造景計劃(各部位 植栽概念圖)	112
• 參考文獻	113

5 색 흙으로 만들었다 — 中略 — 大社에 제사하는데는 后土氏로 配祭하고 大稷에는 后稷氏로 配祭하였다 — 後略 —

- 顯宗 5 年 (1014) 中樞使 姜邯贊이 社稷壇을 수축하다.
- 文宗 6 年 (1052) 皇城안 서쪽에 社稷壇을 새로 쌓고 친히 祀事를 행하고 制勅하기를 “社稷에 后土句龍氏를 배향하고 그 題主와 祝詞에는 이름을 칭하지 않고 句龍을 고쳐 后土氏로 하라” 하였다.

그 이후 宣宗·睿宗·毅宗·忠肅王 禡王때에도 社稷壇을 修築하거나 祭禮儀를 命하거나 또는 祈雨·祈穀祭 등을 지낸 事實들이 記錄되어 있다.

社稷壇의 설치와 祭祀는 高麗代에 이어 朝鮮時代에도 계속되어 漢陽 奠都가 있는 다음 해인 太祖 4 年 (1395) 正月에 社稷壇을 營하였다. 이에 앞서 太祖 2 年 2 月 新都의 宗廟·社稷을 포함한 宮闕과 都城의 擇地를 하면서 社稷之地를 살피고 形勢地圖를 만들었다는 社稷署 儀軌 기록이 있다. (社儀 卷三)

設壇이 完成되자 壇장을 두르고 그 안에 神室과 神門을 세웠다.

이후 여러 代에 걸쳐 壇과 周牆·神室·神門 등의 修築과 改建이 계속 되었으며 社稷署를 두어 灑掃守直과 祭禮를 管掌하게 하였다. (남양(동지후 세삼의 순보))

社稷의 祭禮는 仲春·仲秋·臘日의 大享祀와 正月의 祈穀祭·가을 때의 祈雨祭 등이 있었는데 大享祀 때에는 國家와 民生의 安定을 祈願하게 되었다.

1897年(光武元年) 高宗이 皇帝를 稱號하면서 國社·國稷을 太社 太稷으로 陞號하고 位牌를 改造하였다. 社稷署가 폐지되던 1908年까지는 祭祀를 계속하였으나 同年 7 月 20 日 勅令으로 享祀에 關한 모든 節規와 社稷壇이 政府에 移管된 후 곧 이어 合邦되어 消滅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22年 社稷壇과 그 隣接地를 합한 66,619坪이 京城府로 移管되어서 道路의 開設 및 公園造成을 爲한 諸施設를 하여 大部分의 附屬建物들이 撤毀되었다. 1932年 同 敷地의 一部를 教育施設(梅洞學校) 등의 敷地로 分割되었고, 또한 壇의 西쪽 옛 登科亭 舊基에는 慶熙宮 北쪽에 있던 黃鶴亭이 移建되는 등(1922) 環境의 變化를 가져왔다.

1960年代에 들어와서도 都市計劃事業 施行으로 正門이 移建되고(1962) 圖書館의

新築, 水泳場 開設(1970年代) 등으로 神聖한 社稷壇의 境域은 점차 축소 황폐화 의 길을 걸으며 市民公園化하게 되었다.

現存하는 遺構로는 兩壇과 壇門 및 壇垣, 周垣의 礎石과 基址石 일부만 남아 있고 神室의 基壇과 礎石, 正門과 安香廳 등이 存續하고 있다.

서울市에서는 남아있는 遺構와 遺址를 保存하고 可能한 범위 내에서의 原形復舊를 신중하게 推進하고자 하는 意圖에서 社稷壇地域에 對한 考証調査를 施行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수습되는 資料와 遺構를 살펴 復原計劃을 樹立하려는 內容으로 課業을 定하였다.

約 2 個月間에 걸쳐 文獻調査와 遺構實測 및 부분적인 遺址 試掘調査를 통하여 얻어진 資料를 정리하고 이를 근거하여 復元기본계획을 作圖, 이 內容을 報告書로 作成하였다.

이 作業에는 아래의 人士들이 참여하였다.

- 考証指導 및 考証關係 執筆 ———— 申 榮 勳(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 遺構調査 및 復元計劃, 報告文作成 — 李 應 默(새한建築文化研究所 代表)
黃 義 秀(民學會 總務)
- 現場實測과 圖面作成 ———— 魯 永 鎬(새한建築文化研究所 室長)
李 海 吉(새한建築文化研究所 測地)
洪 性 日(새한建築文化研究所 建築)
鄭 一 權(새한建築文化研究所 建築)
- 樹木調査 및 復元造景計劃 ———— 禹 霆 相(國民大 講師·서인造景 代表)
許 忠 茂(서인造景 設計課長)

이 밖에 여러분 關係者들의 諮問과 助言에 힘입었음을 감사드립니다.

1985. 4.

調査員 一同